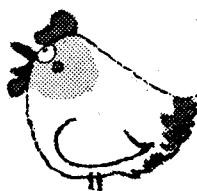


動物藥品需給現況

〈'79 上半期〉



李 憲 求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이사〉

1. 오일쇼크와 약가문제

28일 막을 내린 OPEC회의는 14.55 달러에서 23.5달러로 유가를 인상(할증료 포함)하여 사실상 60% 이상이 경충 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油價引上 러시의 파동이 몰아쳐 석유 59%, 전기 35%라는 사상초유의 기습 인상기록을 초래하여 1백여 품목이 가격 인상되는 등 경제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油價引上은 관련자재의 인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동물약품의 경우 원가구성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료비가 15%, 포장재료비가 35%인상되어 유류비, 노무비, 기타 에너지비 등 제조경비를 제외하더라도 동물약품 원가에 20% 이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원가절감의 문제

일련의 물가인상파동으로 해서 야기된 불경기 탓으로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에 충실을 기하지 않으면 더이상 적자 경영을 지탱하지 못하여 도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업계의 경우도 원가절감에 부심하고 있으나 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규칙상의 업종분류에 “動物藥品製造業”이 누락되어 있음으로 해서 조합결성이 불가능하여 원료공동구입에 의한 원가절감마저 힘드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는 원료가 8종에 불과한데 반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료가 20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조합결성권이 없으므로 해서 필요이상으로 소비하는 외화는 10~15%에 이른다. 협회에서는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유 상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합이 결성되면 기업금융혜택 및 면세에 의한 경영조건이 개선되어 기술적인 면에서의 부차적인 업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3. 사료첨가용 항생물질 사용규제의 문제

78. 7. 1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사용지침”이 발표 시행된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현실정에 맞지 않는 점들이 발견되어 동지침의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79. 5. 10자로 농수산부에 보완요청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완건의 기준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일본사료첨가물 공정(78. 9. 5 일부 개정) 및 ECcommittee 사용현황에 따른 것으로 사용대상축종, 첨가기준, 새로 추가된 약제, 혼합사용금기 사항의 일본개정 및 용어 수정등이 보완건의 내용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가. 인체에 무해한 범위내에서 생산성증가를 위한 약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사용하자는 점

나. 방역상 필수불가결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은 보완하자는 점

다. 현지침에는 금지되고 있지만 FDA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산란계용 첨가제의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을 하자는 점

라. 브로일러에 대한 약제사용에 있어서 현지침중 육계후기(4주이상)에는 금지되어 일부 효능이 우수한 약제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본다면 7일 이내의 휴약기간을 지킴으로써 축한 것이며 따라서 육계후기Ⅱ사료를 제정하여 무첨가사료로써 출하전 7일간 사용케 함으로써 한정된 가축 자본에서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증대하자는 점이며 관계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79 상반기 수출실적

올해 동물약품수입 외화배정액은 1,280萬 불인데 '79. 6월말 현재 638萬불을 사용하여

약 50%를 소모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예년과 같은 추가배정요청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은 비타민, 항생제, 항원총제 각각 35, 21, 14%로 전체의 약 70%로 대중을 이루고 있다. 기타종류의 약품개발은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생산성이 맞지 않음으로해서 개발되지 않는 것에 기인하며 수의 약품업계로 보아서 국내 제조업자들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적으로 '78-'79 상반기 약류별 수입비교를 살펴보자.

끝으로 진축정책과 유류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경기침체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시는 암흑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기에 소홀히 다루기 쉬운 가축질병 예방철저가 아닌가 생각되며 더구나 가축 전염병이 만연하기 쉬운 하절기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질병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78 / '79 상반기 수입비교

품명	'78上	'79上	증감율(%)
비타민제	1,165,198.64	2,308,073.93	98.1
무기물·유기산제	53,052.39	199,504.14	276.1
항혹시듬제	411,002.20	711,242.45	73.1
항원총제	208,432	136,925.22	▽34.3
구충제	55,510.29	64,659	16.5
소독제	30,896.85	64,408.31	108.5
방충살충제	45,375.08	80,333.34	77.0
항생제	685,311.95	1,393,697.13	103.4
설파제	88,226.60	146,190.14	65.7
호르몬제	52,369.26	50,479.19	▽3.6
생물학적제	178,106.50	318,764.84	78.9
기타	376,949.64	403,381.11	7.0
완제품	101,726.37	502,447.35	394
수의기구	9,116.95	99,951.36	996
계	3,461,274.72	6,487,837.41	87.4